

학과 집중도로 본 전문대학 특성화¹⁾와 취업률의 관계

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I. 들어가며

지난 7월 교육부의 「전문대학 육성 방안」(2013.7.18, 이하 「육성 방안」) 발표 이후 전문대학의 설립 목적과 역할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 전문대학이 산업계의 수요와 지역 자원 및 환경과의 조응도를 좀 더 높이고, 직무수행도를 제고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의 운영을 통해 ‘핵심 전문 직업인’ 양성에 주력하는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해야 함을 「육성 방안」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전문대학의 역할 수행을 위한 핵심 과제 중 첫 번째로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이 제시되면서 전문대학 생태계에서 대학 특성화가 긴급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각 대학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정부 재원 및 학내외 자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산업 분야별 현장 선호도가 높은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특성화의 골자이다. 이 같은 특성화는, 전문대학의 교육 투입 요소 및 교육 과정, 산출 결과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고등학교 졸업생의 전문대학 진학률 감소,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전문대학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대학 특성화가 대학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육성 방안」 발표 이후 전문대학 특성화의 구성 요소와 선정 지표 등에 관한 고민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학과군 집중도’가 교육성과, 즉 졸업생

본고에서는 특정 학과군 집중도가 교육성과, 즉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문대학 특성화의 필요충분조건을 탐색적으로 고찰

1) 본고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학 ‘특성화’ 개념은 특정 학과군으로의 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특성화 유형 중 단일 분야 특성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일치하지 않음을 밝힌다. 본고의 특성화 개념은 엄밀하게는 특정 학과군의 학생 비중 등 특성화의 형식적 요인에 기반해 정의한 ‘형식적’ 특성화라고 볼 수 있다.

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문대학 특성화의 필요충분조건을 탐색적 수준에서 고찰한다.

II. 개념 정의 및 분석 자료 · 방법 제시

1. 대학 ‘특성화’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분석 자료와 방법 제시에 앞서, 여기에서는 대학 특성화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대학 특성화의 개념과 유형을 간략히 정리하고,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했는지 제시한다.

조우현(2006)은 특성화 개념에 대하여 특화(specialization)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대학이 타 분야, 타 대학 또는 타 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분야를 선정한 후,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차별적 경쟁력을 높이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학의 특성화는 여러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 전문대학 특성화와 관련 있는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한 분야에서 교육의 수월성이 발휘되고 선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특성화를 이루는 한 측면이며, 취업 중심 대학으로서의 특성화의 경우 산업계의 현재 및 미래 수요와 대학 배출 인력 간의 연계성이 차별적인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조우현, 2006, 정태화 외, 2006에서 재정리). 정태화(2007)는 전문대학 특성화를 “대학이 자체적인 발전 전략을 기초로 학내외의 의견 수렴을 통해 비교 우위가 있는 전공 계열 분야와 발전 기능 유형을 설정한 후, 구조 혁신을 통해 학내외의 자원을 집중시키면서 효과적인 산학 협력 교육 체제와 학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자마다 대학 특성화의 개념을 다소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비교 우위 학문 분야 또는 기능의 선정, 학내외 자원 및 역량 집중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이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라는 대요는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마다 대학 특성화의 개념을 다소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비교 우위 학문 분야/기능의 선정, 학내외 자원 및 역량 집중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이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라는 대요는 공유

선행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같은 대학 특성화 개념을 종합해 조병섭 외(2013)는 특성화를 다음의 세 가지 유형, 1) 비교 우위가 있는 학문 분야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형태, 2) 차별화된 역할기능을 선택해 집중하는 형태, 3) 교육 방법 및 학사운영 등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형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정태화 외(2006)는 전문대학 특성화 유형화 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 전문 직업인 양성과 평생직업교육 제공이라는 전문대학의 핵심 기능 강화와 지역 밀착형 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계열 구성과 조직(또는 학과 편제)을 기준으로 1) 특화된 단일 계열에 집중하는 집중형, 2) 특화된 1개 계열과 관련 계열을 함께 운영하는 전략형, 3) 다양한 학과를 운영하면서 성인 중심의 학사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평생학습형으로 유형화(정태화 외, 2006)하고 있다²⁾. 교육부가 7월에 발표한 「전문대학 육성 방안」에서는 특성화 대학 모형을 1) 대학 단위 특성화(단일 주력 계열), 2) 복합 분야 특성화(2개의 주력 계열), 3) 프로그램 특성화, 4)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앞의 두 모형의 경우 신청 자격을 주력계열 편제 정원 7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특성화 개념과 유형을 참조하여 대학 특성화를 특정 학과군(학과 중분류)에 주력하는 일종의 ‘학문 분야 특성화’로 정의하고, 학과군 집중도를 기준으로 특성화 대학과 비특성화 대학을 구분하여 두 집단의 취업률을 비교하고 특성화 여부가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2. 분석 자료 및 방법

전문대학의 교육 여건 및 취업률에 관한 최신의, 좀 더 상세한 자료 이용을 위해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전국의 2, 3년제 국·공·사립 전문대학 140개교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폐교 제외, 2013.4.1. 기준), 학과/전공 중분류(대학알리미 기준)별 졸업자 현황 및 교육 여건 자료를 풀링

2) 집중형의 경우 단일 특화 계열에 입학 정원의 70% 이상이 집중되며, 전략형의 경우 특화된 1개 계열에 입학 정원의 50% 이상이 집중, 평생학습형의 경우에는 성인 학생이 재학생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pooling)하여 분석 자료를 생성했다.

우선, 학과/전공 중분류별 2013년 졸업생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 명칭과 전체 졸업생 기준 해당 학과군 졸업생 비중을 기준으로 총 10개의 학과군³⁾에서 ‘특성화’ 전문대학 75개교와 ‘비특성화’ 전문대학 541개교를 추출했다(〈표 1〉 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학 명칭에 특정 계열을 내건 학교의 경우 적어도 해당 계열에 속한 학과 또는 전공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하고, 학과/전공별 졸업생 현황 자료에서 이러한 대학과 나머지 대학을 추출한 다음, 두 집단의 해당 학과군 졸업생 비중을 산출해 전자의 비중 수치가 높고, 또한 5%대를 넘는 경우에 분석 자료에 포함시켰다(〈그림 1〉 참조). 표본 수는 616개교이다. 학교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동일 학교의 다수 전공 계열이 별개의 관측치로 분석 자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 학과/전공 중분류별 2013년 졸업생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 명칭과 해당 학과군 졸업생 비중을 기준으로 총 10개의 학과군에서 ‘특성화’ 전문대학과 ‘비특성화’ 전문대학을 추출

표 1. 학과 중분류별 ‘특성화’ 대학과 ‘비특성화’ 대학의 분포 현황

(단위: 개교)

학과/전공 중분류		해당 분야 특성화대(대학 수)	해당 분야 비특성화대(대학 수)
자연계열	간호	간호·보건대 (13)	비간호·보건대 (52)
	보건	간호·보건대 (10)	비간호·보건대 (84)
	농림·수산	과학·농수산대 (2)	비과학·농수산대 (13)
공학계열	기계	공업·공과·이공·정보대* (10)	비공업·공과·이공·정보대 (58)
	전기·전자·컴퓨터	공업·공과·이공·정보대* (9)	비공업·공과·이공·정보대 (97)
	건설	공업·공과·이공대 (5)	비공업·공과·이공대 (73)
예체능 계열	응용예술	문화·예술대 (6)	비문화·예술대 (30)
	음악·국악	문화·예술대 (6)	비문화·예술대 (32)
	미술	문화·예술·영상대 (8)	비문화·예술·영상대 (83)
	연극·영화	문화·예술·영상대 (6)	비문화·예술·영상대 (19)
표본 전체		75	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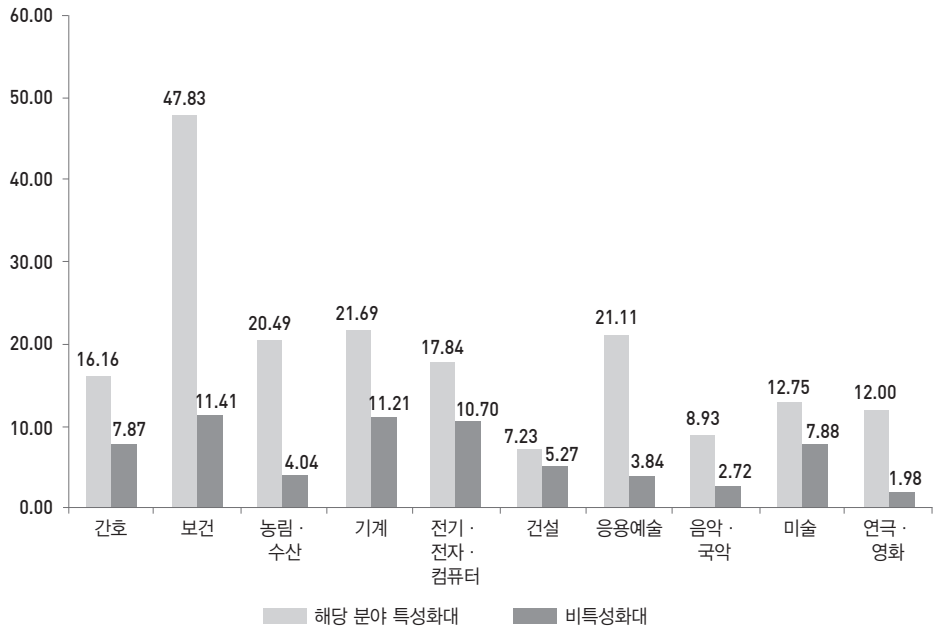
주: * 승강기대 및 자동차대 포함

자료: 대학알리미 원자료(학과/전공 중분류 자료)

3) 대학알리미의 학과/전공 분류 체계는 대분류 기준 5개 영역(인문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과 중분류 기준 29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중분류별 졸업자 현황 자료가 없거나 표본 수가 5개교 미만인 6개 학과군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인문사회 계열의 6개 학과군과 자연계열의 생활과학군의 경우 특성화·비특성화대를 구분하기가 애매해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자연계열의 화학·생명과학·환경과 공학계열의 산업·안전 및 재료, 화공·고분자·에너지 학과군 자료는 대학 명칭에 해당 계열을 내걸고 관련 학과에 집중할 것으로 간주한 과학·보건대 및 공업대 졸업자의 해당 학과군 비중이 5%대 미만으로 나타났고 비과학·공업대학의 졸업자 비중보다 낮게 나타나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예체능계열의 무용체육 학과군 자료 역시 문화·예술대의 해당 학과군 졸업자 비중이 5%대에 그쳐 분석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림 1. 전체 졸업생 기준 학과군 졸업생의 비중(2013년)- 해당 분야 특성화·비특성화 대학 비교

(단위: %)



자료: 대학알리미 원자료(학과/전공 중분류별 자료)

다음 절에서는 상기와 같이 추출한 특성화 대학과 비특성화 대학의 취업률을 단순 비교하고, 주력 학과군에 집중하는 대학 특성화가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교 규모 및 수도권 소재 여부, 설립 유형을 통제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 때, 본 분석 자료는 학과/전공 중분류별 졸업자 취업 현황 자료를 폴링한 것이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학과군별 취업률이다. 따라서 학과별로 다른 산업계의 인력 수요나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에서는 제외되는 프리랜서 활동·창업 선택 졸업자의 비중 차이 등 학과별로 상이한 노동시장의 특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과별 더미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한다. 참고로, 학교 규모 변수는 개별 학교의 총 졸업생 수를 기준으로, 소규모(졸업생 1,000명 미만), 중간 규모(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대규모(2,000명 이상) 학교로 생성하였다. 취업률은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건강보험 직장 가입 취업자+해외 취업자+영농업 종사자 / {졸업

자-(진학자+입대자+취업 불가능자+외국인 유학생+건강보험 직장 가입 제외 대상자)]×1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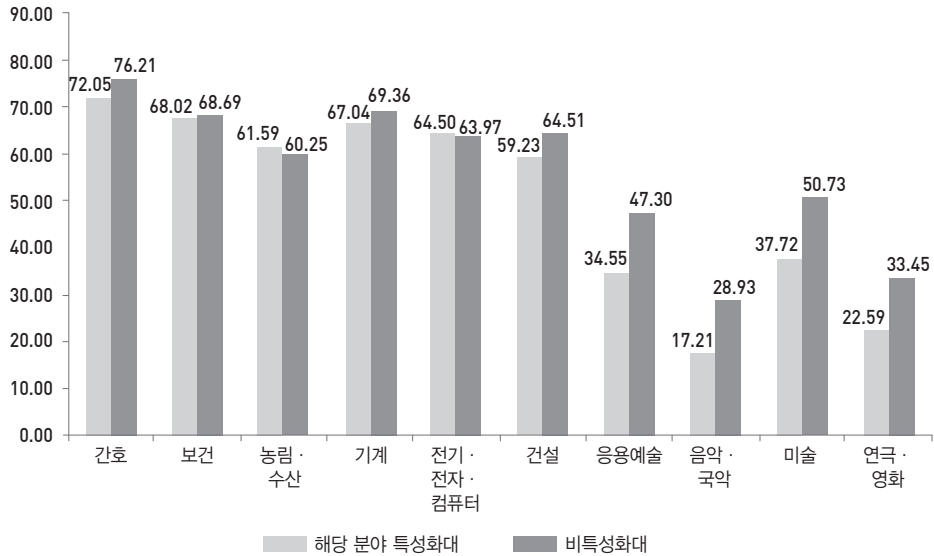
Ⅲ. 분석 결과

1. 학과 중분류별 특성화 전문대학과 비특성화 전문대학의 취업 현황

대학 명칭과 관련 있는 단일 계열에 주력하는 집중형 전문대학의 경우 교원의 동질성 확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정 분야로의 학내외 인적·재정적 자원의 효율적 투자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이 수월하며, 안정적인 취업처 확보가 가능하다는 강점(정태화 외, 2006)이 있기에, 주력 분야의 취업률은 종합형 대학에 비해서 높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과 중분류별 해당 분야 특성화 대학과 비특성화 대학의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농림·수산과 전기·전자·컴퓨터 학과군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비특성화 대학의 취업률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그림 2] 참조). 자연계열의 간호학과군의 경우 해당 분야 특성화 대학(간호·보건대학)의 취업률이 비특성화 대학(비간호·보건대학)보다 4.16%p 낮게 나타난다. 공학계열의 건설학과군의 경우 해당 분야 특성화대(공업·공과·이공대)의 취업률이 비특성화(비공업·공과·이공대)대에 비해 5.28%p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특성화대와 비특성화대의 취업률 격차가 상당히 큰데, 문화·예술(·영상) 전문대학의 학과군 취업률이 비문화·예술(·영상) 전문대학의 취업률에 비해 많게는 13.01%p(미술), 적게는 10.86%p(연극·영화)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학과 중분류별 취업률(2013년)- 해당 분야 특성화·비특성화 대학 비교

(단위: %)



자료: 대학알리미 원자료(학과/전공 중분류별 자료)

각 분야의 특성화 대학이 대학 명칭과 관련 있는 계열·학과를 비교 우위의 학문 분야로 선정하여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학과 구성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교육성과 중 하나인 취업률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 분야에서 특성화 대학의 해당 학과군 졸업생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 대학이 대학 명칭과 관련 있는 계열·학과를 비교 우위의 학문 분야로 선정하여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학과 구성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교육성과 중 하나인 취업률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졸업자의 취업률에는 지역 내 산업체 분포 현황,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상황 등 학교 특성이 영향을 미치므로 학과 특성화가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요소를 통제된 후 특성화 여부와 취업률의 관계를 파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학과 집중도 기준의 특성화 여부와 취업률과의 관계

여기에서는 학교 규모, 수도권 소재 여부, 설립 유형과 같은 학교 특성을 통제변수로 활용해 학과군 집중도를 기준으로 한 특성화 여부가 전문대학 취업률에 미치는

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표 2〉)를 보면, 특성화대의 상관계수 부호가 모두 음(-)으로 나타나 특성화가, 더욱 정확하게는 학과군 집중도가 취업률을 낮추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 학과군 집중도는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신, 졸업생 수 2,000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이 졸업생 수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보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국공립 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규모, 비수도권, 국공립 유형은 모두 취업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전문대학 취업률 영향 요인 회귀분석 결과

	model1		model2	
	상관 계수	표준 오차	상관 계수	표준 오차
학과/전공 더미(보건기준)				
- 간호	8.898***	2,398	8.921***	2,386
- 농림수산	-14.859***	4,123	-15.791***	4,112
- 기계	.311	2,362	.156	2,356
- 전기전자컴퓨터	-4.125*	2,101	-4.148*	2,101
- 건설	-2,321	2,272	-2,588	2,271
- 응용예술	-18,248***	2,908	-17,667***	2,920
- 음악/국악	-35,663***	2,852	-35,609***	2,855
- 미술	-17,244***	2,181	-17,230***	2,188
- 연극영화	-38,115***	3,346	-37,477***	3,351
특성화 더미	-2,657	1,847	-1,286	1,895
학교 규모(대규모 기준)				
- 소			-4.109*	1,856
- 중			.146	1,536
수도권			-2,621+	1,382
국공립			6,062*	2,780
상수	67,287***	1,542	68,770***	2,022
Number of obs	616		616	
Prob > F	0.0000		0.0000	

주 : ***, .001, ** .01, * .05, +.10

자료: 대학알리미 원자료

그렇다면, 왜 대학 특성화, 즉 특정 학과군 집중도가 취업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성화, 즉 특정 학과군 집중도는 대학 명칭과 졸업생 비중에 기반한 개념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형식적 혹은 외형적 특성화라고 할 수 있고, 특성화의 다른 필수 요소인 교육 여건, 현장 맞춤 실무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국가와 지역의 전략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문대학 특성화와 교육성과 중 하나인 취업률의 관계를 좀 더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다각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대학알리미에서 학과/전공 중분류별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학과군 전임 교원 수와 산업체 경력 전임 교원 수(2012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졸업생 1인당 전임 교원 수의 경우 학과군별 해당 분야 특성화 대학과 비특성화 대학의 전임 교원 수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간호, 농림·수산, 전기·전자·컴퓨터, 음악·국악, 연극·영화 학과군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분야 특성화대의 전임 교원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졸업생 1인당 산업체 경력 전임 교원 수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계의 기술 변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기계, 전기·전자·컴퓨터, 건설 관련 학과 등 공학 분야 특성화대의 경우 산업체 경력 보유 교원 수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외의 간호, 보건, 농림·수산, 연극·영화 학과군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계의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적시에 개편하여 제공하기에는 기술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산업체의 현장 경험을 학생들에게 교육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속도에 부응하기가 더욱 어려운 데, 이에 산업체의 첨단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현장 전문가를 교육 현장에 유입시키고자 채용하는 산업체 경력 보유 교원의 의미는,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직업 인재를 양성한다는 특성화의 기본 방향을 고려하면 더욱 중요하다.

요컨대, 상기의 결과만으로 앞서 제시한 질문, 특성화, 즉 특정 학과군 집중도가 왜 취업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다소 부족하지만,

전문대학의 특성화 전략 수립 시 구조 혁신의 방향과 원칙, 인적 구성원의 적합성 제고와 같은 교육 여건의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학과 구성의 집중도 또는 계열 집중도를 높이는 등의 양적인 대학 구조 혁신은 특성화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산업체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율 및 교육비 환원율 제고와 같은 질적인 차원의 혁신 없이는 교육성과 제고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도 특성화 전문대학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적용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체제로 개편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다(「전문대학 육성방안」 보도자료, 2013.7.18).

학과 구성의 집중도/계열 집중도를 높이는 등의 양적인 대학 구조 혁신은 특성화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에는 분명. 그러나 산업체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율 및 교육비 환원율 제고와 같은 질적인 차원의 혁신 없이는 교육성과 제고로 이어지기 어려움

표 3. 학과 중분류별 졸업생 1인당 전임 교원 및 산업체 경력 교원 수- 해당 분야 특성화·비특성화 대학 비교

(단위: 명, 개교)

학과/전공(중분류)		해당 분야 특성화(A)	해당 분야 비특성화(B)	차이(A-B)
		간호·보건대	비간호·보건대	
간호	졸업생 1인당 전임 교원 수	0.098	0.102	-0.004
	졸업생 1인당 산업체 경력 전임 교원 수	0.022	0.028	-0.006
	N	13	52	
보건		간호·보건대	비간호·보건대	
	졸업생 1인당 전임 교원 수	0.045	0.045	0.000
	졸업생 1인당 산업체 경력 전임 교원 수	0.006	0.008	-0.002
	N	10	84	
농림·수산		과학·농수산대	비과학·농수산대	
	졸업생 1인당 전임 교원 수	0.065	0.077	-0.012
	졸업생 1인당 산업체 경력 전임 교원 수	0.000	0.014	-0.014
	N	2	13	
기계		공업·이공·정보대*	비공업·이공·정보대	
	졸업생 1인당 전임 교원 수	0.076	0.065	0.011
	졸업생 1인당 산업체 경력 전임 교원 수	0.010	0.006	0.004
	N	10	58	

(표 계속)

이슈 분석

학과/전공(중분류)		해당 분야 특성화(A)	해당 분야 비특성화(B)	차이 (A-B)
전기· 전자· 컴퓨터		공업·이공·정보대*	비공업·이공·정보대	
	졸업생 1인당 전임 교원 수	0.077	0.085	-0.008
	졸업생 1인당 산업체 경력 전임 교원 수	0.009	0.007	0.002
	N	9	97	
건설		공업·이공대	비공업·이공대	
	졸업생 1인당 전임 교원 수	0.105	0.089	0.016
	졸업생 1인당 산업체 경력 전임 교원 수	0.013	0.006	0.007
	N	5	73	
응용 예술		문화·예술대	비문화·예술대	
	졸업생 1인당 전임 교원 수	0.074	0.072	0.002
	졸업생 1인당 산업체 경력 전임 교원 수	0.011	0.008	0.003
	N	6	30	
음악· 국악		문화·예술대	비문화·예술대	
	졸업생 1인당 전임 교원 수	0.064	0.078	-0.014
	졸업생 1인당 산업체 경력 전임 교원 수	0.008	0.001	0.007
	N	6	32	
미술		문화·예술·영상대	비문화·예술·영상대	
	졸업생 1인당 전임 교원 수	0.084	0.072	0.012
	졸업생 1인당 산업체 경력 전임 교원 수	0.013	0.006	0.007
	N	8	83	
연극· 영화		문화·예술·영상대	비문화·예술·영상대	
	졸업생 1인당 전임 교원 수	0.088	0.106	-0.018
	졸업생 1인당 산업체 경력 전임 교원 수	0.005	0.027	-0.022
	N	6	19	

주: 1) * 승강기대 및 자동차대 포함

2) 학과/전공 중분류별 전임 교원 수 및 산업체 경력 전임 교원 수 자료는 2012년 자료이고, 졸업생 수 자료는 2013년 자료임.

자료: 대학알리미 원자료(학과/전공 중분류별 자료)

IV. 시사점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주력 학과군 중심의 학문 분야 대학 특성화에 있어서, 해당 학과군의 졸업생 비중이나 학과 구성의 집중도와 같은 외형적인 요건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전문대학 특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직무수행도가 높은 우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양질의 산업 인력 공급을 통해 지역 산업계의 발전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결국, 주력 계열을 선정하여 해당 계열의 정원을 확대하고 학과 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계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양적인 대학 구조 혁신은 특성화의 출발점으로, 교육비 환원율과 (산업체 경력) 전임 교원 확보율 제고 등의 교육 여건 개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국가 및 지역의 전략산업 분석 등을 통해 그 안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 요소를 녹여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같은 내실 있는 특성화를 위하여 특성화 모형별 구성 요건과 각각의 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특성화 모형별 특성화 추진 컨설팅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학 명칭과 특정 학과군 졸업생 비중을 기준으로 특성화 대학과 비특성화 대학을 구분하고 있어 전문대학 특성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변수 선정이 정교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상기의 실증 분석 결과는 대학 명칭에 특정 계열을 내건 학교가 실상은 해당 계열로의 인적·재정적 자원의 집중도가 현저히 높지도 않고, 주력 계열 특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미흡할 경우 대학 명칭으로 인해 자칫 교육 수요자를 호도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KRIVET

해당 계열의 정원을 확대하고 학과 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계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양적인 대학 구조 혁신은 특성화의 출발점. 교육 여건 개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국가 및 지역의 전략산업 분석 등을 통해 그 안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 요소를 녹여내는 것이 관건

특성화 모형별 구성 요건과 각각의 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특성화 모형별 특성화 추진 컨설팅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교육부(2013), 「전문대학 육성 방안」(2013.7.18.)

정태화 외(2006), 전문대학 특성화 및 구조혁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_____ (2007),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운영 방안, 교육과학기술부·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조병섭 외(2013), 전문대학 특성화 전략 추진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with you

행복한 일자리, 역량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행합니다